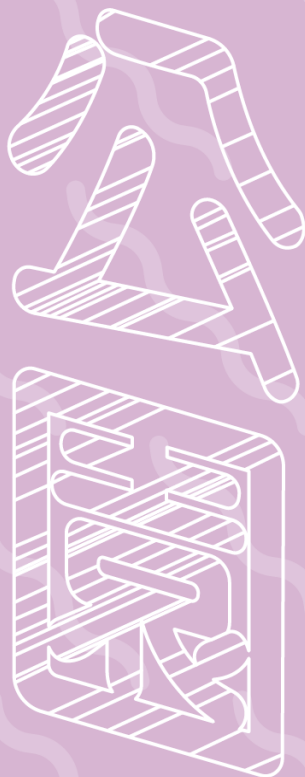


2017

공원학개론



새로운 공원 문화를
위한 공원에 대한
넓고 깊은 지식 나누기

05

공원은 우리의 자산이다

문화비축기지

세계의 '지역을 살린공원, 공원을 살린 사람들'

김연금 소장
조경작업소 올

공원학개론 마지막 이야기



**공원은
우리의 자산이다**

김연금 소장

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을 가졌다. 현재는 조경작업소 울을 운영하고 있다. 박사논문의 제목은 '소통적 조경계획 및 설계'이다. 저서로는 우연한 풍경은 없다(단독 저서),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다(공동 저서) 등이 있다.



#5 공원은 우리의 자산이다

생태적 가치, 문화적 가치, 경제적 가치 등등 공원의 가치는 높습니다. 자연을 만날 수 있고, 돈을 내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 쉬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. 또 문화공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

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. 누군가는 공원을 빈 땅으로 여겨 무언가를 자꾸 지으려 하고, 공원의 관리와 운영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. 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. 즉 시민이 공원의 주인으로 나서야합니다.

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공원의 다양한 가치가 지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, 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여기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사례도 포함될 것입니다.

MEMO





문화비축기지

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문화공원입니다



마포석유비축기지에서 문화비축기지까지

41년간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산업화시대 유산입니다. 1973년 석유파동 이후 76~78년에 5개 탱크를 건설해 당시 서울시민이 한 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인 6,907만 리터의 석유를 보관했던 마포석유비축기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는데, 10년 넘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013년 시민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문화비축기지로의 변신을 결정했습니다.

축구장 22개 크기인 14만㎡ 부지 가운데에 개방된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6개의 탱크가 이를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한 '재생'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도시재생 랜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.



T0 문화마당

임시 주차장이었던 넓은 야외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대형 광장입니다.



T1 파빌리온

해체 후 남은 콘크리트 옹벽 안에 유리로 벽체와 지붕을 새로 만들어 과거의 옹벽과 현재의 건축물, 매봉산의 암반지형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

T2 공연장

탱크의 상부는 야외공연장으로 하부는 실내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공연이 없는 날엔 야외공간을 휴게쉼터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T3 탱크의 원형

석유비축기지를 조성한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유류저장탱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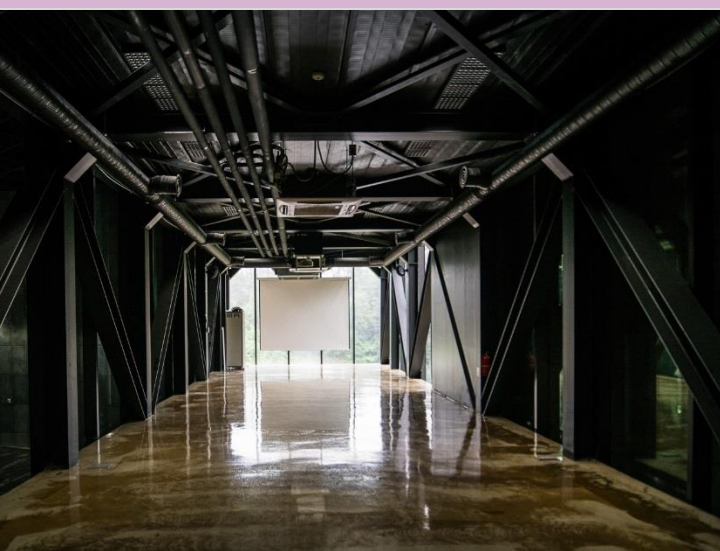
T4 복합문화공간

천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여러 개의 파이프 기둥과 어우러져 숲 속의 느낌을 전달하며 환경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운영합니다.



T5 이야기관

탱크의 안과 밖, 콘크리트 웅벽, 암반과 절개지까지 모두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로 바뀌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 공간입니다.



T6 커뮤니티센터

T1, T2에서 해체된 철판을 재활용해 다시 조립한 신축 건축물로 정보교류실, 강의실, 회의실,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.

석유에서 문화로
문화비축기지

생명의숲 FOREST FOR LIFE

생명의숲 소개

사람과 숲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숲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시민 환경 단체(NGO)입니다.

IMF로 신음하던 1998년, 숲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생명의 숲 가꾸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

- 미션** 시민의 힘으로 건강한 숲,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
비전 누구나 생명의 숲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세상
핵심 가치 다양성과 조화, 혁신, 소통



생명의숲을 움직이는 회원의 힘



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



숲을 지키기 위한 시민 자원 활동



3,000여개 학교에 숲을 만들다

주요 활동 소개



숲에서
자라는 아이들
학교숲



건강한 도시생태계
녹색 도시공동체
도시숲



건강하고
지속가능한 숲
숲정책활동



숲과 사람을 잇고
돌봄과 나눔을 실천
숲 문화·교육



숲의 가치를
발굴하고 나누는
아름다운 숲 전국대회



숲과 사람
지역과 기업의 공존
지역공존의숲



숲을 통한 나눔
사회복지숲



북한 황폐지 복구
미래준비의숲

숲을 움직이는 시민의 힘

생명의숲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!

연간 50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.

후원 계좌 : 농협 013-01-284491 (예금주 : 생명의숲)



생명의숲
FOREST FOR LIFE

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, 숲센터 5층
T. 02-735-3232 H. www.forest.or.kr
E. forestfl@chol.com



프로그램
안내
1:1 소통



실시간
활동 현장
이야기



생명의숲과 함께 하는 도시숲캠페인

도시공원일몰제

공원의 30%는 포기하는 것. 이게 최선입니까?

민간공원 특례제도라고 들어 보셨나요? **민간공원 특례제도란**, 사업자가 땅을 사서 30%는 수익시설을 만들고 70%는 공원으로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. 70%의 공원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? BUT! 사전 타당성 심사 없이 수익구조만 고려하는 사업개발로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민간에서 제안하는 방식이어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아직은 30%의 공원도 함께 지켜야할 때가 아닐까요?

생명의숲이 제안하는 도시공원일몰제 Solution 3

#1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련 부서 신설

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요 기관들이 함께 나서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
#2 녹지를 위한 세금, 녹지세 부과

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숲과 공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. 그린벨트, 보전녹지 같은 다른 제한구역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세금, 녹지세를 제안합니다.

#3 트러스트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

시민들이 돈을 모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을 매입해서 보존하는 트러스트 제도!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제도가 없습니다.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.

서울둘레길, 너 괜찮은 거니?

COMING SOON

여러분이 사랑하는 서울둘레길, 사랑하는 만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이용방법과 너무 많은 이용으로 인해 둘레길이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서울 둘레길에 관한 소식을 생명의숲에서 받아보세요!

